

상하이의 작은 유럽 형산루를 가다

큰 도로인 형산루 옆으로 작은 도로인 동핑루, 웨양루, 젠귀시루, 편양루가 서로 얹혀 있는 지점이다. 과거 상하이의 고급 주택가로 외국인들도 많이 거주하였다고 한다. 넉넉하게 공간을 차지한 2층 정도의 주택들이 옹골차고 품성한 플라타너스 가로수와 어울려져 푸근한 느낌을 가지게 한다. 책에 소개된 가게들을 차례대로 확인했다. 비교적 집중되어 있어 찾기가 쉽다. 중국 식당은 물론이고 인도, 타이, 스페인 등의 식당과 커피숍, 바, 맥주 펍, 소품 가게 등이 있다. 한 눈에 외국인들이 많이 찾아오는 거리라는 느낌이 든다. 특히 서양인이나 여성들이 좋아할만한 분위기의 거리이다. 특별하게 인도나 타이, 스페인 요리가 먹고 싶을 때 한 번 정도 찾아와 주변을 둘러보고 갈 만 하다.

1시간 정도 탐색을 하고 나니 벌써 시간이 2시 30분을 넘었다. 식사를 하려고 타이 식당에 들어갔다. 원래는 점심 식사 세트 메뉴를 시켜 먹으려고 했는데 토요일이라서 안 된다고 한다. 메뉴판을 보니 가격이 엄청 세다. 간단하게 톰양쿵 수프와 밥을 시켜 먹었다. 수프의 양은 적지만 맛은 좋다. 하지만 한 번 먹어 본 것으로 충분하다.



형산루(衡山路)역 4번 출구로 나와서
 주욱 올라가신 다음에
 衡山路와 东平路가 만나는 곳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됩니다.

